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고문의 상처

남산을 바라 볼 때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 라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지금도 나에게서는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1973년 9월 어느 날 나는 을지로 3가 인쇄소 골목에 들어섰다. 그 전날 친구인 강은기와 재판 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두 명의 건장한 사람이 "너 이해학이지? 꼼작 마라."면서 다가왔다. 순간적으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뒤에도 두 사람이 입구 쪽을 막고 있어서 결국 붙잡힌 나는 차에 실려 남산으로 끌려갔다. 순간적으로 '죽었구나!' 며 겁에 질렸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남산 중앙정보부가 고래 뱃속 같고 나는 그 아가리로 막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금이 저려왔다. 당하기도 전에 내가 당할 고통이 온몸을 덮쳐오는 듯 하였다.

남산에 얽힌 고통

나는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 실무자로서 정기 스텝 미팅에 참석했다. 당시 박형규 위원장과 권호경 총무는 구속되고 나머지 사람인 나 외에 이규상, 모

갑경, 허병섭, 황인숙 등이 있었고 김동완 목사가 총무 대행을 하고 있었다. 이규상 목사가 재미교포신문을 보여주면서 "문동환 목사의 부인 우편물에 들어있었던 것인데 복사해야 한다."고 했다. 거기에는 남산 야외음악당 유인물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박형규 목사님에 대한 상세한 소식과 함께 그의 설교가 전면에 실려 있었다. "누가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묻자, 내가 하겠다고 나섰다. 을지로에서 인쇄 일을 하는 고향 친구 강은기가 있기에 그 친구에게 부탁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국내 신문은 한 줄도 실지 못하는데 박형규 목사님 기사가 실렸다는 것은 감격스러웠고 이 일을 잘 처리해서 널리 알리고 싶었다. 신문을 받아본 강은기는 "이런 신문은 재판 뜨는 기계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기에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난처해하면서 나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 다음 날까지 해 주기로 해서 선금을 주고 왔다.

나는 3층의 어느 방으로 끌려들어갔다. 방에 들어

서자마자 나를 잡아가던 순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표독스럽게 돌변해서 내게 달려든다. “너 이 신문 누구에게 받았어?” 내가 머뭇거리자 발길로 걷어차면서 겁을 주었다. 나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으나, 내가 갑자기 큰 죄를 지은 사람같이 느껴졌다. 갑자기 닥친 일이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나는 “주웠다.”고 하였다가 “사무실 책상 위에서 우연히 보고 가져왔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오로지 2시에 종로 5가 이화다방에서 만나기로 한 이규상 목사만 불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여기가 어딘지 알지, 죽어 볼래? 이 새끼가 지금 뭘 모르누만.” 왜 그리도 시간이 안 가는지, 한참을 버틴 것 같은데도 시간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았다.

맛을 만큼 맛은 뒤 얼핏 시계를 보니 3시가 넘은 뒤였다. 더 이상 견딜 수도 없었지만 이때쯤이면 불어도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규상 목사가 이 신문을 내게 복사를 해서 4시까지 이화다방으로 가져오라고 했다.”고 털어 놓는 척 했다.

갑자기 차량을 대기시켜 ‘선발대가 떠나라.’는 지시가 떨어지고 나를 실은 차는 이화다방으로 향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다방에 들어서니 우리의 단골 아지트여서 잘 아는 종업원들이 어색하게 맞아 주었다. 나는 이규상 목사가 미련스럽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거나 않을까 두리번거렸지만 다행이 없었다. 눈치를 채고 피한 모양이다 싶어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이규상 목사가 잡히면 문동환 목사의 미국인 부인 문혜림(Harriett Moon) 님을 붙여야 할 것이다. 그리되면 많은 소식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분의

우편물이 우리 때문에 중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조바심이 났었다. 이미 한쪽에서는 다방 종업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2시쯤 키 작고 뚱뚱한 사람이 기다리다 갔다.’는 정보를 얻은 모양이었다.

“아, 이 쥐새끼 같은 놈들 벌써 튀었어.” 하면서도 그들은 5시까지 다방에서 기다리다가 남산으로 돌아오면서 차에서부터 겁을 주기 시작했다. “너 아주 전문가구나. 이규상을 못 잡으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너 아주 전문가구나?

밥을 시켜주었는데 나는 배고픈 줄도 몰랐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먹을 양식을 주어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나자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성장 배경을 써라, 존경하는 사람을 써라, 너희 조직을 대라, 누구와 접선을 하고 있느냐?, 복에는 몇 번 다녀왔느냐?’ 질문의 수위가 점점 올라갔고 그럴 때마다 나는 깜짝깜짝 감전되듯 놀랐다.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새벽 2시쯤 지하실 쇠창 안에 있는 방으로 보내졌다. 욕조와 침대 문 쪽의 검은 막 안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았다. 왜 그리 추운지 덜덜덜 떨면서 새우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6시가 넘었다.

아침을 먹고 그들은 또 조사를 시작했다. 다시 ‘너희 조직을 대라, 누구와 접선을 하고 있느냐?, 복에는 몇 번 다녀왔느냐?, 네가 복사한 이 신문이 로스 엔젤레스 교포들이 만든 것은 알고 있지?, 이 신문이

김대중을 해외에서 지원하는 신문인 줄은 알고 있느냐?, 그 신문의 일본책을 아느냐, 이 신문이 이북의 지령에 움직이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나.’는 등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는 지하실로 데리고 갔다. 옷을 벗으란다.

팬티도 벗으란다.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팬티를 벗었다. 한 사람이 걷어차자, 나는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세 사람이 거인처럼 보였다. 그 중에 하나는 침대 목으로 나를 사정없이 패는데 자기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때렸다. 내가 무슨 비명을 지르며 견뎠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다만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그들 앞에서 내가 메뚜기 같았다는 느낌이다. 그들 앞에서 몸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구겨진 동물처럼 노출되어 있었을 뿐이다. 그런 내게 번데기같이 오그라진 내 성기를 침대 목으로 꼭꼭 찌르며 내 뺨은 그 사람의 말은 차마 쓸 수가 없다. 그러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깊은 흉터 같이…….

메뚜기 같았던 느낌

그 후 그들은 옷을 입혀 나를 사무실로 다시 데려갔고 퍽 너그러운 모습으로 대해줬는데, 그저 고맙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들은 내게 속내를 드러냈다. ‘김대중을 좋아하지 않느냐?, 네가 북쪽의 조직과 단독으로 이 일을 하였다면 그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만일 협력하지 않으면 너와 김대중이 묶여서 빨갱이가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라며 방에 데려다 놓았다가 다시 지하실로 데려다가 또 옷을 벗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그날 밤에 왜 그들이 나를 신고 성남 우리 집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아마 여기저기에 내 소식이 알려지면서 걱정들을 하니까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 아내는 옷을 갈아입으라는데 나는 퍼런 멍을 보일 수 없어서 그냥 남산으로 갔고 그 다음날 풀려났다.

그 방에는 서류철이 많이 있었다. <KT 주변 인물 조사철>, <KT 후원자 조사철>, <KT 사건 예비훈련철>, <KT 사건 결과 보고> 등의 서류들이 구석에 꽂혀 있었다. 그 방에서는 국내의 모든 신문에 난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고 있었다. 가끔 사람들이 와서 수고했다고 격려하기도 하고 아쉽다고 인사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바로 조금 전에 일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납치한 사람들이고 그 뒷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직도 아물지 않는 상처

나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체의 일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 만일 발설할 시에 어떤 대가도 치루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하였다. 빨리 나가고 싶어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해버렸다. 말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다짐에 겁이 난 것 보다 만일 나와 관계된 사람이 조직에 있었다면 다 말할 것이라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나를 더 무겁게 짓눌렀다.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내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는다. 내 부끄러움도…….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해학(목사)

'민주시민단체' 에 무료 광고를 제공합니다

월간 「**희망세상**」은 전국의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민주시민단체에 광고 지면을 무료로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홍보팀 전화 02-3709-7538, 전자우편 stonesok@kdemo.or.kr 로 해 주십시오.

함께 만드는 **희망세상**

- 구독료 납부 안내 -

「희망세상」은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제까지 무료로 보급하던 것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 구독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자발적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연간 1만 원이며 그 이상의 정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815601-04-019001

농 협 013-01-298022

(예금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자발적 유료화에 참여하시는 분은 저희 사업회에서 마련하는 행사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